

제2절 삼한시대

1) 김정배(金貞培) 『초기국가-고조선, 부여, 삼한(개요)』 한국사④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 글(시대개관)은 위 책자에 크게 의존하여 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

1. 시대개관¹⁾

1) 고조선 · 부여 · 삼한

① 고조선



사진2-13 : 고조선 「제왕운기」에 실려있는 단군 신화에 관한기록

우리 역사의 첫 출발을 논의할 때에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민족형성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고조선은 민족구성의 연원을 이루고 있고 특히 국가의 기원과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무대의 범위가 비로소 정해진다는 측면에서도 고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한편 고조선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조선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는 건국신화이다. 단군(檀君)으로 상징되는 건국시조가 신화 차원의 존재인가 또는 역사적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점에서 단군으로 상징되는 해당 사회의 성격은 현재 우리 민족형성의 가장 원초적 모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군은 결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실체를 단순화하고 신성화시킨 것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원전 198년 위만(衛滿)은 고조선의 준왕(準王)을 축출하고 보다 강력한 국가인 위만조선(衛滿朝鮮)으로 성장하여 한에 대하여 외신(外臣)이라는 방식으로 조공체계에 편입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주변세력을 복속시켜 나갔다. 위만조선은 변방 정치집단들의 한나라와의 교역을 중계하여 중계무역(中繼貿易)의 이익을 독점하였으며, 또한 흉노(匈奴)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한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급성장하였다.

이같은 상황은 한의 위만조선 침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사진2-14 : 고조선 위치도(서기전2세기경)

결국 위만조선은 2년여에 걸친 전투끝에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참전한 한의 장군 4명 가운데 3명이 참형을 당하고 1명만이 살아남아 서인(庶人)으로 신분이 강등되었다는 사실은 한무제(漢武帝)의 위만조선 정벌이 결코 승리한 전투가 아님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는 위만조선지역에 있던 기존의 토착적 정치세력 집단의 판도를 활용하여 4군(四郡)을 설치하였고, 나아가 한의 4군에서 주화과 세력들이 후(侯)로 임명되어 정치적 대우를 받았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사실은 더욱 명료해진다.

또한 한사군(漢四郡)은 사료상으로 약 26년정도 존재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이 곧 폐지되거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였으며, 단지 낙랑군(樂浪郡)만이 존속되어 중국화의 연결창구와 중국문화 유입의 통로구실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사군은 위만조선 내부의 지배세력 재편과 연결되어 나타난 친중국계 정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위만조선 지역에 설치된 한의 군현(郡縣)은 고조선 및 주변세력에 대한 통제와 한의 직접적인 지배를 위한 것이었으나, 이같은 의도는 토착사회의 반발과 공격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리고 한4군의 성격도 중국계 유이민의 자치세력 또는 중계무역의 중심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도 후한(後漢)대에는 고구려의 압박으로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어 결국 소멸되었다. 따라서 낙랑군 등의 존재는 한의 직접적 지배라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문화중계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② 부여

고조선과 함께 우리역사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존재 가운데 하나가 부여(夫餘)이다. 부여를 형성한 고고학적 문화는 백금보(白金寶)·한서(漢書)·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문화는 송눈평원(松嫩平原)과 길림(吉林)지역을 중심으로 토광목곽묘(土壙木槨墓)를 사용하여 철기등을 반출하고 있다.

부여의 선주(先主)세력으로 믿어지는 고리국(高麗國)은 기원전 4~3세기부터 사료에 나타나고 있어 부여의 역사가 매우 깊었을 뿐 아니라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



사진2-15 : 부여 위치도

조선이 중국과의 대립으로 일찍 소멸된 것에 비하여 부여는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어 후속하는 여러 정치체의 하나의 연원이 되었다. 즉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의 별종(別種)으로 기록될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왕실이 모두 부여 계통임을 천명하고 있다.

③ 삼한



사진2-16 : 삼한 위치도

삼한(三韓)사회는 청동기문화 단계 이래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성립되어 있던 토착사회가 성장 발전한 것이다. 삼한사회는 이에 앞서 있었던 진국(辰國)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진국은 세형동검문화에 기반을 둔 사회였는데 삼한사회는 이를 계승·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진국은 위만조선과 같은 시기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늦어도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국은 한(韓)으로 통칭되기도 하였는데 점차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으로 대표되는 정치집단을

구성하였다.

문헌자료에 나타나 있는 ‘韓’은 우리민족을 지칭하는 통칭 가운데 하나였는데 점차 시대를 내려오면서 지역 및 정치세력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삼한의 명칭 및 형성과 관련하여 요동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북삼한(北三韓)이 남하·이동하여 남삼한(南三韓)이 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2) 삼한의 정치와 사회 및 문화

삼한으로 통칭되는 78개 ‘國’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대사회의 정치발전 단계론에 입각한 국가의 기원 및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삼한 각 ‘국’의 통치체계는 신지(臣智)를 정점으로 하고 밑으로 읍차(邑借)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로 서열화 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삼한의 정치조직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삼한 각국의 통치계층들이 중국세력으로부터 그들의 위상에 대응하는 작호를 수여 받았다는 것도 삼한 사회의 정치발전 수준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한사회의 주된 생산경제는 농경으로서 삼한은 농업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료에 나타나는 삼한시대의 작물로는 오곡(五穀)과 벼(稻)가 있으며 이밖에 누에와 뽕을 쳐서 겐포(縵布)를 제작하였다.

또한 소와 말 그리고 돼지가 사육되었으며 이밖에 닭 등의 가축도 사육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한사회의 생산활동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삼한의 종교문화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한에는 별읍(別邑)인 소도(蘇塗)와 이를 주관한 것으로 천군(天君)이 따로 있었으며 파종이 끝난 5월과 추수기인 10월에 각각 기풍제(祈風祭)와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를 지냈다고 한다. 이는 농경사회인 삼한사회의 종교 양상이 천신(天神)으로 대표되는 농업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삼한시대 광양의 위치

1) 문헌상 검토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는 78개의 소국명(小國名)이 보인다. 이러한 소국²⁾들이 어느정도의 영역을 차지한 어떤 성격의 사회였는지는 상기(上記)시대개관을 참고하고, 그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가를 광양(光陽)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³⁾

그리하여 광양이 마한(馬韓)에 속했다고 생각되었던 종래의 위치 설정을 검토하여 광양의 역사적 위치와 성격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검토를 위한 시대적 하한시기는 광양(光陽)이 백제에 편입되었을 때인 근초고왕 24년(A·D. 369)까지를 하한(下限)시기로 하였다.

「삼국지」한조에 기록된 78개의 소국이 존재한다는 상황은 공손씨정권(公孫氏政權)이 무너진 A·D 237~240년경을 상한으로 하고, 「삼국지」 위본기에 한(韓)관계의 최종기사가 보이는 A·D 261년을 하한으로 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三國史記」 본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동천왕(A·D 227~247)과 중천왕(A·D 248~269)대에 걸치는 시기이며, 백제는 고이왕(A·

2) 이러한 삼한의 소국은 종래에는 부족국가로 불리었는데 최근에 이기백(李基白)·천관우(千寬宇)씨는 이를 성읍국가(城邑國家)로, 김정배(金貞培)씨는 군장사회(君長社會)로 각각 고쳐 부르고 있다.

3) 광양의 삼한내에서의 소속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천관우(千寬宇)씨의 논문인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東洋學』9, 1979)에 크게 의존 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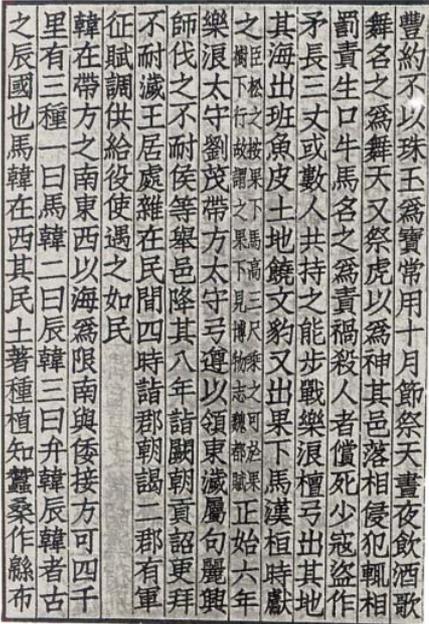


사진2-17: 삼한-「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이는 기록

D234~285), 신라는 조분왕(A·D230~246)과 점해왕(AD247~261)의 시기에 해당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후일에 신라로 발전되는 사로국(斯盧國: 물론 「삼국사기」에는 신라로 기록되어 있다.)은 벌휴왕 2년(A·D185년)부터 점해왕 7년(A·D253년)에 걸쳐 소문국(의성), 감문국(금령군 개령), 골별국(영천), 사별국(상주)을 정복하여 바로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시대인 3세기 중엽에는 진한지역 전역의 통일을 끝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지」는 진한을 10여국의 분립상태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미 사로국(신라)에 편입된 성읍(城邑)에 불과하여 다만 그 부족적 전통이 다소의 반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한(馬韓)의 경우도 백제국(百濟國: 후일의 百濟)과 같은 강대한 세력권 내에 들어간 뒤의 성읍(城邑)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백제국(百濟國)의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백제(百濟)에게 완전 흡수된 성읍(城邑)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 인접지역 소국(小國)들에 대한 검토

역사가 천관우씨는 마한소속의 「부사분사국(不斯瀆那國)」을 옛 승주군의 낙안(樂安)으로 비정(比定: 비교하여 정함)하고 있다. 천관우씨는 낙안의 옛 이름이 분차(分嵯) 혹은 부사(夫沙)임에 착안, 「부사(夫沙)」의 고음(古音)은 Piu-sa, 「부사분사(不斯瀆那)의 「부사(不斯)」이며, 「분사(瀆那)」 Puem-ia 혹은 bium-ia는 「벌(伐)」과 같은 접속사로 추측한다.

우리는 옛 승주군 낙안(樂安)이 웅진도독부의 분차주(分嵯州)가 아니더라도 고래로 유력한 근거지였던 것을 「삼국사기」 내물기(奈勿紀)에 「부사군진일각록(夫沙郡進一角鹿)」이라 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⁴⁾

또한 천관우씨는 「원지국(爰池國)」을 전남 여수로 비정하고 있다. 「원지(爰池)」의 고음(古音)은 jiwon-die, 여수의 옛 이름인 원촌(遠村)-해읍(海邑)의 「원(猿)」은 고음(古音)jiwon, 「村」이 「支」·「知」 등 성(城)내지 취락(聚落)과 상통하는 만큼 「원지(爰池)」의 「池」가 이에 가까운 것이 된다.⁵⁾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변한(弁韓) 즉 가야(伽耶)의 영역이 어디까

4) 千寬宇, 上揭論文, p.230

5) 千寬宇, 上揭論文, p.230

지로 설정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역사가 이병도(李丙燾)씨는 변한의 소국 중 「변낙로국(弁樂奴國)」을 경남 하동군 악양(岳陽)으로 비정(比定)하고 있다. 낙로(樂奴)는 바로 낙랑(樂浪)과 같은 대음(對音)으로, 『樂』은 낙랑(樂浪)의 사례에 쫓아 『아』행음(行音)으로 읽음이 가능하고, 『노(奴)』는 良, 羅, 那, 襄과 같이 국읍(國邑)의 뜻인 듯 생각된다.⁶⁾

그러나 역사가 천관우씨는 이 소국(小國)을 경남 진주(晉州)로 비정(比定)하고 있는데 천관우씨의 『弁樂奴國』의 진주설은 근거가 희박하여 그 자신 확정을 못하고 있다.

3) 삼한시대 광양의 위치

종래에 있어 광양은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마한(馬韓)에 소속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양이 변한(弁韓)에 소속되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된다. 경남 하동의 악양(岳陽)은 광양과 근접한 지역으로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대부분 학자들은 마한과 변한 혹은 백제와 가야의 경계를 두고 섬진강으로 하고 있는데 고대사(古代史)에 있어서 강이나 산을 너무 의식하고 영역을 구획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고대의 항해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전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강이나 또는 대하천 일지라도 영역구획의 커다란 의미는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광양에는 변한과 연결지어 생각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사실이다.

- ① 광양시 진상면 비촌마을에 변한의 성지로 전해오는 유적이 있다.⁷⁾
- ② 광양시 옥룡면 내천마을에 변한의 성지로 전해오는 유적이 있다.⁸⁾
- ③ 광양시 골약동 중군리 · 중마동 · 광영동과 옥곡면 장동리 · 신금리 경계에 「가야산(伽倻山)」이란 명칭의 산이 있다.

A · D 3세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전하는 5가야가 존립해 있을 시기였다. 광양과 인접한 가야국은 고성(固城)일대라고 생각되는 소가야(小伽倻)와 함안(咸安)일대로 추정되는 아라가야(阿羅伽倻)가 있다. 그러면 「三國志」 한조에는 변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은 「삼국유사」의 가락국가가 12국중에서 강성하였던 5국(5가야)만 기록하였거나 혹은 5가야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기록되었던 때문일 것이다.

6) 李丙燾, “三韓問題의 研究”,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pp.274~275

7) 全南道史編纂委員會, 『全羅南道史』, 1956, P.1112

8) 上揭書, P.1112

이상에서 살핀대로 광양이 일반적으로 마한과 변한의 접경으로 생각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마한에 속하였는지 변한에 속하였는지는 확연히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사실상 광양은 마한, 변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충지역이었거나 시대에 따라 소속이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광양이 백제의 세력권에 편입된 것은 근초고왕대(A.D 346~375)인 것으로 추측된다. 「日本書記」神功紀49년(A·D369년)과 50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록이 있다. 倭軍이 卓淳(大邱)에 집결하여 新羅를 격파하고, 比自炆(昌寧)·南伽羅(金海)·喙(慶山)·安羅(陝川)·伽羅(高靈)·卓淳(大邱)등 洛東江 七國을 평정한 뒤 西쪽으로 迂廻하여 古奚津(康津)에 이르러 仇彌多禮를 함락시키고 이를 百濟의 近肖古王에게 賜하였다. 이때 마침 近肖古王이 王子 貴須(近仇首)와 함께 軍을 이끌고 倭軍과 합류하니 比利·辟中(寶城)·布彌支(羅州)·半古등의 全南方面의 四邑이 自然降服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A·D 370년에는 倭王이 百濟에게 多沙城(河東)을 增賜하였다.⁹⁾

마한은 백제의 팽창과 더불어 점차 축소되어 그 중심지를 종래의 직산(稷山)방면에서 익산(益山)방면으로 옮긴 듯한데,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이지역에 출정하여 마한의 나머지 소국이 있던 전남지역을 경략(經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왜병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것처럼 되어있는 「日本書記」의 기록은 허위이며, 사실은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이끄는 백제군의 작전을 원병으로 출정한 왜병이 돕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 「일본서기(日本書記)」의 기록을 믿는다면 광양이 백제의 영역내에 들어온 것은 A·D 370년에 경남 하동이 백제에 편입된 시기와 같거나, 그와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광양의 삼한시대 유물·유적

광양지역에서 현재(2002. 12. 31)조사된 삼한시대의 유물·유적으로는 광양 태인동 도촌 유물산포지 등 10개소에 산포되어 있으며 개소별로 유물·유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9) 千寬宇, “復元 加椰史”(中)「文學과 知性」(1977, 봄호), PP. 916~918에서 재인용

10) 「文化遺蹟分布地圖」順天大學校博物館 2002년, P.208



사진2-18 : 옥룡면 산남리 남정 유물 산포지II



사진2-19 : 진상면 섬거리 새뜸 유물산포지

〈표2-8〉 광양의 삼한시대 유물·유적 (2002. 12. 31현재)				
연번	유적명	소재지	유물·유적	비고
1	光陽 太仁洞 도촌遺物 散布地	광양시 태인동 도촌	연질, 경질토기편	
2	光陽 紗谷里 억만遺物 散布地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억만	외면에 시문된 발형 또는 삼발형토기편	
3	光陽 龍江里 와룡遺物 散布地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와룡	승석문, 파상문이 시문된 경질토기류	
4	光陽 仁西里 遺物散布地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경질토기편 (삼한·백제)	
5	光陽 石社里 옥헌遺物 散布地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옥헌	적갈색 연질토기(삼한), 회청색 경질토기(백제) 청자편(고려)	
6	光陽 石社里 옥헌 貝塚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옥헌	패총(삼한), 적갈색토기(삼한)	정밀지표 조사가 필요함
7	光陽 新錦里 遺物 散布地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경질토기편	
8	光陽 山南里 남정遺物 散布地II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남정	경질토기편	
9	光陽 蟾居里 새뜸遺物 散布地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새뜸	적갈색 연질토기(대부분) 회청색 경질토기(일부)	
10	光陽 靑岩里 도원遺物 散布地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도원	적갈색 연질토기	생활유적으로 판단됨

제3절 백제시대

1. 시대개관¹¹⁾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는 서기전 18년에 건국되어 서기

11) 盧重國 「삼국의 정치와 사회(개요)」, 한국사⑥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 글(시대개관)은 위책자에 크게 의존하여 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